



2026년 2분기 경영실적

2026.07



Disclaimer

본 자료는 HD건설기계(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 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2026년 2분기 경영 실적
2. 영업이익 분석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4. 재무상태표
5. Outlook

[별첨]

1. 사업부별·지역별 매출액

1. 2026년 2분기 경영 실적

■ 2Q26 실적 매출액 +18% YoY 상승, 영업이익 +92% YoY 증가

- 매출은 건기 주요 지역의 높은 성장세 유지된 가운데, 산업용/방산 엔진 중심의 엔진 매출 성장에 힘입어 전년대비 +18% 증가
-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 속 건설기계 수익성 개선, 건조한 엔진 이익 더해지면서 전년대비 +92% 개선

(단위 : 억원)

구분	2Q25	1Q26	2Q26	QoQ	YoY
매출액	20,588	23,049	24,342	+5.6%	+18.2%
영업이익	1,297	1,907	2,489	+30.5%	+91.9%
영업이익률(%)	6.3%	8.3%	10.2%	+2.0%p	+3.9%p
순금융비용	-207	-163	-143	-	-
외환손익	-657	548	183	-66.6%	-
세전이익	303	2,244	2,449	+9.1%	+708.0%
당기순이익	158	1,739	1,807	+3.9%	+1,046.2%
지배지분	200	1,739	1,804	+3.7%	+801.8%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4 주. 2025년 실적은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합병을 가정하여 작성된 수치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자료 기준

 HD건설기계

2026년 2분기 경영실적입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성장하여 2조 4,34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건설기계 부문은 주요 지역의 높은 성장세가 이번 분기에도 유지되었고, 엔진 부문도 산업용/방산용 엔진 호조에 힘입어 매출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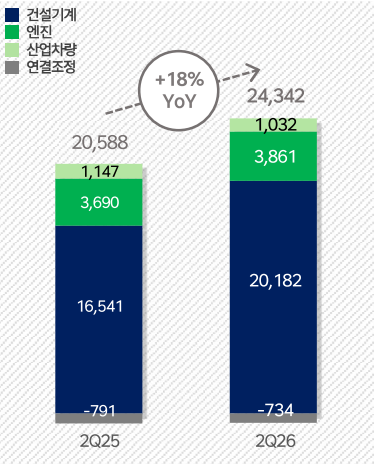
영업이익은 매출 성장이 긍정적인 가운데 건설기계 사업부의 지역과 제품 Mix 개선이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전년대비 +92% 증가한 2,4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 2026년 2분기 경영 실적

■ 매출액과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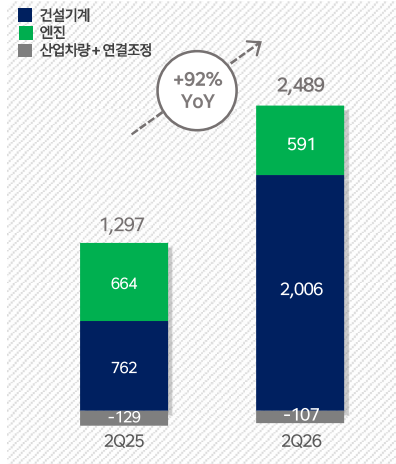
매출액

(단위 : 억원)



영업이익

(단위 : 억원)



전사 영업이익률

10.2%

YoY +3.9%p

건설기계

9.9%

YoY +5.3%p

엔진

15.3%

YoY -2.7%p

5 주. 회사 내부 관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연결조정 항목 별도 표기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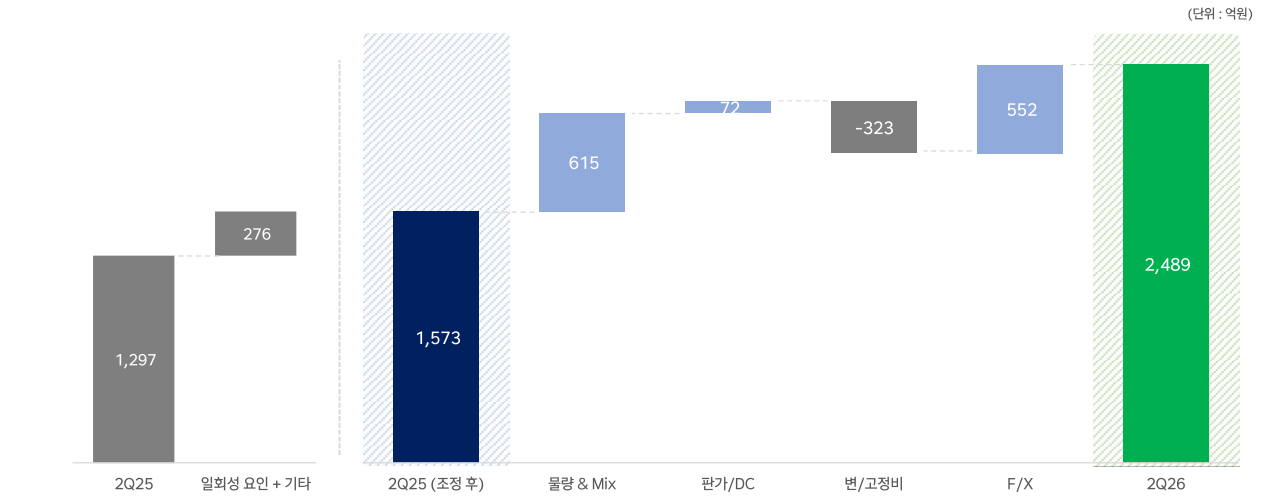
2분기 경영실적을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사 영업이익률이 10.2%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부의 성장이 매출과 이익 양 측면에서 모두 두드러졌고, 엔진 사업부도 두 자릿수의 건조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 영업이익 분석

■ 영업이익 변동 요인

- 물량 확대와 제품/지역 Mix 개선에 힘입어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판가 인상 및 프로모션 비용 축소, 환율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2% 증가



6 주. 2025년 2분기 HCE/HDI 단순 합산 영업이익 1,459억원(연결조정 -162억원 반영 시 1,297억원), (+) 일회성 요인 '25년 기저효과 +167억원(현대 중국사업 재편 관련 비용), 관세 환급, 총당금 환입 등
주. USD/KRW : 2Q25 1,402 → 2Q26 1,502, EUR/KRW : 2Q25 1,588 → 2Q26 1,746

HD건설기계

영업이익 분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92억원 증가한 2,48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수요 회복에 따른 물량과 지역/제품 Mix 개선 효과가 전년대비 +615억원, 판가인상과 프로모션 비용 축소 효과가 전년대비 +72억원, 물가 상승에 따른 변/고정비 증가 요인이 -323억원, 원화 약세로 인한 달러 및 유로 관련 환율효과가 +552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일회성 요인으로는 작년 2분기에 반영되었던 중국 사업 재편 관련 기저 효과 +167억원, 미국 관세 위헌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금 +67억원이 있습니다.

관세 환급금은 현대 +60억원, 디벨론 +7억원입니다. 그 외 일부 총당금 환입 등을 포함하여 총 27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 건설기계

■ 건설기계

지역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Q25	2Q26	YoY
건설기계 매출액		16,541	20,182	+22.0%
건설기계 제품		14,729	18,234	+23.8%
America	북미	1,875	2,006	+7.0%
	중남미	1,600	2,078	+29.9%
EMEA	유럽	2,503	3,160	+26.2%
	ME/AF	2,748	4,161	+51.4%
APAC/CIS	한국	1,730	2,163	+25.0%
	중국	1,527	1,741	+14.1%
	인도	1,009	1,232	+22.1%
	SEA/CIS/OC	1,411	1,659	+17.6%
기타		324	33	-89.9%
건설기계 부품		1,813	1,949	+7.5%
건설기계 영업이익		762	2,006	+163.3%
(%)		4.6%	9.9%	+5.3%p

✓ 매출액 : 글로벌 수요 회복 긍정적

- 시장 회복 본격화되면서 전 지역 성장세로 전환
- 특히, 인프라 및 광산 투자 관련 수요 이어지면서 중대형 중심의 판매 지속도 긍정적
- 안정적 부품 매출 확보 전략 추진하면서 수익성 높은 매출 기반 확대

✓ 영업이익 : 지역/제품 Mix 개선

- 수익성 높은 지역/제품 중심 매출 확대되면서 건설기계 사업의 영업이익률 큰 폭 개선

7

HD건설기계

건설기계 사업부 실적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제품과 부품 매출은 전년대비 +22% 성장한 2조 182억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2,006억원, 영업이익률은 9.9%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신흥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심의 인프라 투자 및 자원 개발 관련 광산 수요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유럽의 경기 회복 추세와 공공 투자 확대 지속, 생각보다 견조하게 유지된 북미 비주택 건설 수요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들에 힘입어 시장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고장비 수출 확대에 따른 교체수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중국도 내수 시장 성장하는 가운데 해외 시공 물량 꾸준히 발생하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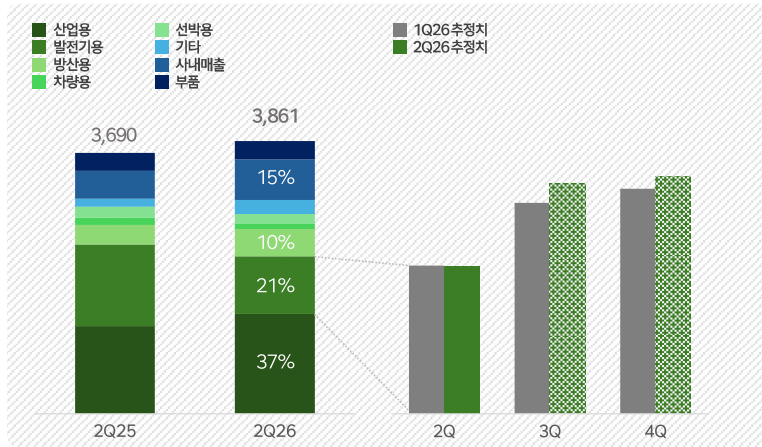
건설기계 사업부의 수익성도 큰 폭으로 개선되었는데, 매출 증가와 더불어 중/대형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 Mix 개선, 판가 인상과 프로모션 비용 축소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과 수익성의 동반 상승은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에도 시장 회복과 연동하여 매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한 부품 매출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사업부문별 실적 분석 - 엔진

엔진

용도별 매출



✓ 매출액 : 글로벌 수요 회복 긍정적

- 매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긍정적인 가운데, 사내/외 산업용 엔진 물량 증가에 힘입어 +5% YoY 성장
- 발전기용 엔진 매출은 전력 수요 지속되면서 하반기 성장 본격화 기대

✓ 영업이익 : 꾸준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은 전년 높은 기저 및 Mix 변화로 다소 하락했으나,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 긍정적

8

HD건설기계

엔진 사업부 실적입니다.

매출은 주요 제품군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5% 성장한 3,86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사내/외로 건설기계 및 일반 산업용 엔진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방산용 엔진 매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제품 Mix 변화로 인해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은 개선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발전기용 엔진 매출의 경우, 2분기 중 추정치에 부합되는 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추정은 오히려 상향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북미 Microgrid, Data Center 등 전력 관련 수요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되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4. 재무상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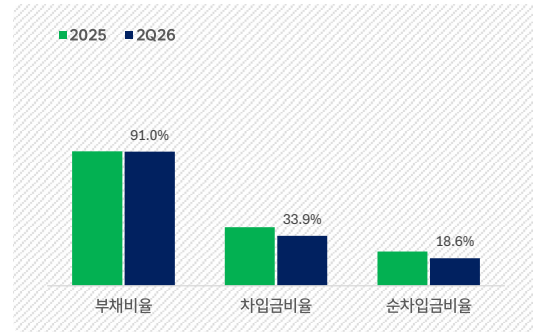
■ 요약 재무상태

(단위 : 억원)

구분	2025	1Q26	2Q26
자산총계	88,389	92,971	96,153
현금성자산	7,683	7,347	7,679
유동자산	49,476	53,617	56,217
비유동자산	38,913	39,353	39,935
부채총계	42,203	44,673	45,816
차입금	18,368	17,420	17,052
순차입금	10,686	10,073	9,373
자본총계	46,185	48,298	50,336
부채비율	91.4%	92.5%	91.0%

9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 2025년 말 요약 재무상태표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합병을 가정하여 작성된 수치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내부 자료 기준

■ 주요 재무지표 분석



- 이익 증가에 따른 자본총계 확대로 부채비율 전년말 대비 개선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과 주주 가치 제고 정책 수준을 감안하여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지속할 예정

재무구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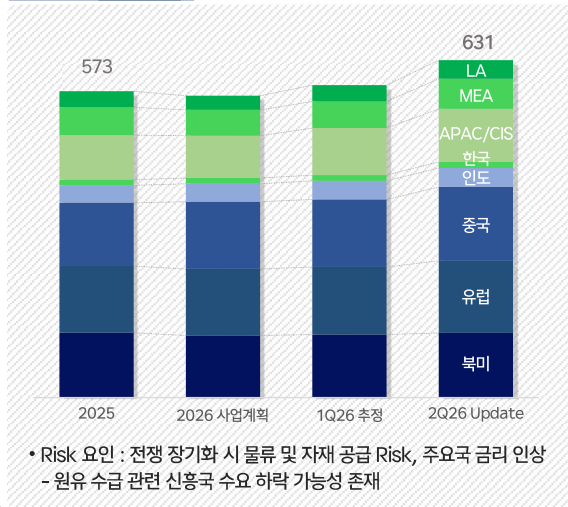
상반기 누적 순이익 증가에 따른 자본 총계 확대로 전년말 대비 부채비율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회사는 건고한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망

26년 시장 전망

(판매대수 기준, 천대)



북미, 유럽

- 북미 데이터센터 투자 및 제조업 온쇼어링 긍정적이나, 고금리로 인한 주거용 시장 부진 및 관세 불확실성은 부정적
- 유럽 렌탈 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수요 증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중심 시장 성장



APAC/CIS, MEA, LA

- 전쟁 여파로 중동 수요 부진했으나 중남미 광산 수요 중심 성장세와 아시아 주요국 인프라 확대 지속 등 전반적 회복세
- 최근 전쟁 확산 추세로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 우려



인도, 중국, 한국

- 인도 건설 관련 정부 프로젝트 지속되면서 장비 수요 견조
- 중국 양중양신 정책으로 인프라 집행 가속화되면서 수요 증가
- 한국 건설 및 주택 부진으로 경기 회복 제한적이나, 중고장비 교체 수요 지속되면서 시장 수요 긍정적



HD건설기계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건설기계 시장의 하반기 전망과 당사의 지역별 매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지역별 글로벌 시장 상황입니다.

건설장비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당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며,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2025년 57만 3천 대에서 2026년 63만 1천 대로 약 1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는 고금리로 인해 주거용 시장이 다소 부진하고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투자와 제조업 온쇼어링 등을 통해 전년과 유사한 시장 규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상반기 렌탈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의 회복세가 나타난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회복 추세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P·CIS, 중동·아프리카, 중남미는 자원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가 상반기 내내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남미와 아시아 등에서 광산 및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관련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최근 확산 양상을 보이는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하반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우려 사항입니다.

참고로 중동·아프리카는 전체 수요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중동은 약 2.5% 수준으로 수요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파가 글로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까지 잠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도는 건설 관련 정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장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고,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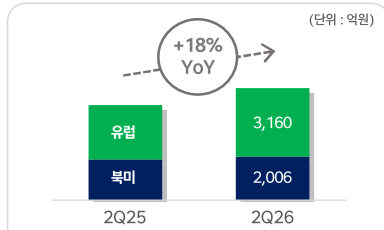
중국 역시 양중양신(兩重兩新) 정책으로 인프라 투자 집행이 가속화되면서 내수 시장의 성장세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과거 피크 시점 장비의 교체 수요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수요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건설 및 주택 관련 회복세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고 장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신차 구매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여 시장의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반기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쟁으로 인한 수요 변동이 뚜렷하게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전쟁이 재차 격화될 우려가 남아 있고 이 경우엔 물류비 인상, 물류 차질, 부품 수급 등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하반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 건설기계 지역별 실적 및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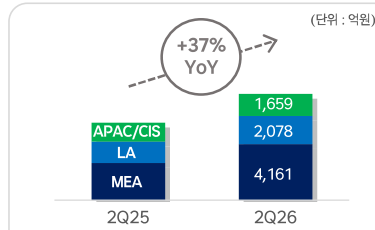
NA/EU



중대형굴착기/트럭/컴팩 판매 확대 및 채널 파이프라인 개선

- 북미 : 굴착기/트럭 판매 증가로 인한 상반기 매출 개선, 하반기 제철시장 공략 등 프로모션 강화 및 공백지역 딜러 개발 및 채널 강화 지속 추진
- 유럽 : 차세대 신모델 굴착기/트럭/컴팩 등 판매 안정화되면서 상반기 매출 개선, 향후 서/북 유럽 채널 개편으로 영업기반 강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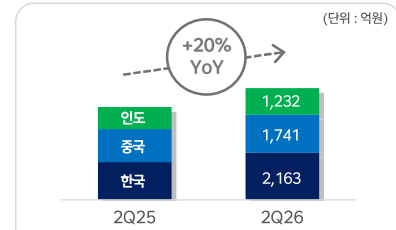
MEA / LA /APAC/CIS



광산 수요와 입찰 물량으로 실적 개선, 하반기 경제형 라인업 확대

- MEA : 아프리카 금광 프로젝트 공급 확대
- APAC/CIS : 대양주 컴팩 판매 호조와 CIS/ 몽골 초대형 장비 판매 확대로 실적 개선, 하반기 경제형 라인업 확대 도입 추진
- LA : 콜롬비아, 페루 등 광산 수요 확대와 멕시코 배기규제시행('26.11) 전 선수요 대응으로 판매 확대

India/China/Korea



내수 성장세 지속 및 수출 다변화를 통한 판매 기반 확대

- 인도 :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하반기 판매 호조 지속 전망
- 중국 : 시장 성장 + 해외시공 물량 증가 긍정적, 중국산 장비 수출 지역 확대 추진
- 한국 : 중장비 수출 호조 속 32톤 차세대 신모델 출시 효과로 하반기 판매 호조 지속 전망

11

HD건설기계

당사 건설기계 사업부의 지역별 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미와 유럽입니다. 북미와 유럽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성장하였습니다. 북미에서는 굴착기와 트럭 판매 확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유럽 역시 차세대 신모델 출시 효과와 채널 안정화가 매출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북미 제철 시장 공략을 위한 프로모션 강화, 공백 지역 딜러 개발, 그리고 서유럽 및 북유럽 채널 재정비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퍼시픽, CIS 지역은 전년 대비 37%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광산 프로젝트 공급 확대와 중남미 광산 투자 증가가 주요 성장 동인이었습니다. 또한 대양주 컴팩트 장비 판매 확대와 CIS 및 몽골 지역 대형 장비 판매 호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형 라인업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추가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인도, 중국, 한국 등 단일 국가 지역 역시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장비 보조금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은 내수 회복과 함께 해외 시공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차세대 모델 출시 효과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양호한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등 다양한 성장 시장에서 균형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형 장비, 광산 장비 등 수익성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여 매출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과 금리 등 외부 불안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북미·유럽의 채널 경쟁력 강화와 하반기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중남미, 아시아, 인도 등 지역에서의 적극적인 매출 개선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익성 중심의 믹스 개선 전략을 지속하면서 시장 하락 요인을 방어하고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 Outlook – 엔진

발전기용

인천공장 대형 엔진 생산능력 추가 증설



- 북미 Oil & Gas 산업 영향으로 매출 다소 정체되었으나, 하반기 성장 추세 회복 전망
- Oil & Gas Field, Data Center, Microgrid 등 상용발전 수요 추가 대응을 위한 생산능력 확대
- 군산 초대형 발전기용 엔진 생산시설 확보를 통해 비상발전 시장 대응 또한 본격화 전망
(비상전력 ≥ 주전력 규모 설계 : N+1·2N 표준)



방산용

2H 군산공장 양산 개시, 생산능력 확대



- '26년 10월 군산 공장 준공식 진행 예정
- 지정학적 갈등 속 전차엔진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기 공급 국가 외 추가 수출 확대 기대
- 정부 및 체계업체 연관 신규개발 과제 등 다수 진행 중, 국내 체계 수출 사업 연계 및 엔진 단독 추가수출 확대 기대



12 주, 대형엔진 : 15~22L급 엔진

HD건설기계

< 발전용 엔진 >

먼저 자료 작곡의 발전용 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발전 사업은 크게 비상용 중심의 디젤 엔진과 상용 중심의 가스 엔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오일 앤 가스 필드향 물량이 전년 대비 다소 부진하면서, 믹스 차이로 설명드렸던 가스 엔진 매출에서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가스 발전용 엔진 매출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 가스 엔진의 경우 데이터센터 또는 분산 발전 쪽으로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 오일 앤 가스 필드 외에, 데이터센터나 분산 발전소를 중심으로 상용 발전 쪽에서 요구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엔진은 인천공장 내 대형 엔진 생산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물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충 규모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가스 엔진 물량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물량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생산 물량은 고객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여서, 오늘 발표에서 상세 물량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2리터급 가스 엔진을 중심으로 생산 물량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 엔진 수요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빠른 납기입니다. 최종 고객사 프로젝트의 보안상 물량 정보를 모두 전달받지는 못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데이터센터에서는 다른 많은 전력 원들의 납기가 상당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얼마나 빠르게 물량을 받을 수 있느냐이며, 당사는 분명 한 납기 경쟁력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검증된 트랙 레코드입니다. 해당 엔진은 약 15년 이상 국내에서 운영해 온 엔진입니다. 저희 북미 주요 고객들과 함께 북미 시장에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러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고객 수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스 엔진 외에, 작곡 마지막 클래스로 설명되어 있는 초대형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공장 가스 엔진 증설 외에도, 기존에 발표했던 군산공장 초대형 엔진 증설도 일정에 맞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7리터급 디젤 엔진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초대형 디젤 엔진은 기존에 저희가 영위하고 있던 비상 발전용은 물론, 데이터센터향 비상 발전 시장 대응에도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본격적인 매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전원의 경우, 말 그대로 메인 전력에서 이슈가 생겼을 때 대응해야 하는 핵심적인 전력원이기 때문에 주요 시설의 경우에는 요구 전력 대비 N+1 또는 2N 이중화 설계가 표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업 비상 전력 시장의 경우에는 주 전력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 규모까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방산용 엔진 >

이상으로 발전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우측에 있는 방산용 엔진 생산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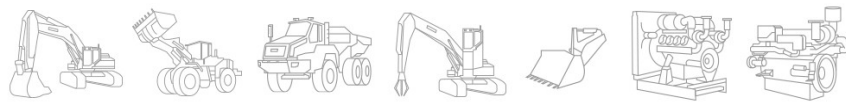
해당 내용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군산공장에서 진행되는 건입니다. 발전기용 엔진과 마찬가지로 방산용 엔진은 군산공장에서 올해 10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군산공장의 캐파가 확충되고 나면 인천공장에 준하는 수준까지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산 엔진의 중심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K2 전차용 엔진입니다. K2 전차용으로 국내 양산 물량과 수출 물량 모두 일정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 체계업체들과도 함께 사업 기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차 엔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에 공급하던 국가 외에도 추가 수출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당사 단독으로 엔진을 추가 수출하기 위한 사업 기회 또한 모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방산 사업 특성상 중장기적인 물량이 계획되고 계약에 따라 진행되며, 보안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인천공장만으로는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산공장에서 생산을 통해 확충된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업부별·지역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1Q25	2Q25	3Q25	4Q25	2025	1Q26	2Q26	YoY
매출액	18,879	20,588	19,716	20,084	79,269	23,049	24,342	+18.2%
건설기계 제품	13,400	14,729	14,430	14,746	57,305	17,488	18,234	+23.8%
America	북미	1,473	1,875	1,913	7,096	1,855	2,006	+7.0%
	중남미	1,310	1,600	1,746	6,293	1,917	2,078	+29.9%
EMEA	유럽	1,768	2,503	2,862	9,921	2,812	3,160	+26.2%
	ME/AF	1,971	2,748	2,809	10,575	3,313	4,161	+51.4%
APAC/CIS	한국	2,446	1,730	1,544	6,753	2,854	2,163	+25.0%
	중국	1,450	1,527	1,237	6,109	1,696	1,741	+14.1%
	인도	1,460	1,009	802	4,379	1,570	1,232	+22.1%
	SEA/CIS/OC	1,350	1,411	1,132	4,960	1,333	1,659	+17.6%
기타	173	324	383	339	1,220	138	33	-89.9%
건설기계 부품	1,794	1,813	1,627	1,609	6,843	1,787	1,949	+7.5%
엔진	3,049	3,690	3,178	3,346	13,264	3,361	3,861	+4.6%
산업차량	1,189	1,147	1,184	1,131	4,652	974	1,032	-10.1%
연결 조정	-553	-791	-703	-748	-2,795	-561	-734	-

14 주. 회사 내부 관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엔진사업부 매출액은 사내 매출 제거 등 연결조정 반영 전 수치임.

 HD건설기계

건설기계

Q. 전망보다 좋았던 지역은?

- 신흥 3개 권역(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시아CIS)과 유럽이 예측 상회.
광산·인프라 투자가 수반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기조 지속될 전망

Q. 아프리카 하반기 판매 흐름 및 딜러와의 관계

- 중동 사태로 일부 원유 수입국의 석유 공급 제한, 신규 수요 지연 가능성 있으나,
채산성 이슈 때문이 아니므로 향후 원유 공급 원활해지면 수요 개선 흐름 전망
- 당사는 에티오피아·수단·이집트·리비아·알제리·모로코 등 동부가 메인,
최근 남아공·서아프리카도 부상함. 주요 딜러들과 최소 15년 이상 관계 유지

Q. 신제품 효과—구조적 성장인가

- 작년 8월 한국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 출시된 차세대 신모델은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될 전망

Q. 금 이외의 광물 가격과 건설기계 수요 연동성?

- AI 데이터센터 전력기기용 광물 수요 상승
→ 중남미·아프리카 동(구리) 수요 호조, 기타 지역 구리·광물 수요 지속

엔진

Q. 초대형(37L급) 엔진 수주·공급?

- 37L 엔진은 내년 1월 본격 양산, 올해는 파일럿 엔진으로 주요 고객 탑재 및
공급 물량 수주 진행 예정. 기존 발전사업 고객 대상 엔진 라인업 확대의 성격

Q. 엔진 연간 OPM 가이드라인 변경 계획은?

-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우선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변동 시 시장과 소통
- 하반기 신공장 운영으로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증가하나 영업이익 하락 요인
크지 않음

공통

Q. 전사 영업이익 증가 요인과 향후 전망

- (1H) 물량 증가와 제품/지역 Mix 개선(MEA, LA 등) 및 고환율 긍정적
- (2H) 신흥·유럽 초과 성장 지속 전망하나,
글로벌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정학적 갈등 지속은 Risk 요인임